



2면

전북도, 상용차 수소충전소
특수목적법인 설립협약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0년 10월 16일 금요일 (음 8월 30일) 제263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국회단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국가예산 전략회의... 중점사업 추가 반영 대응논의 도·시군 정치권과 공조체계구축... 전방위 건의활동

전북도가 '코로나19' 비상 사태에도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 자강불식(自強不怠)의 자세로 국가예산 추가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군산항 7부두 야적장 구축, 홀로그래프 소재부품 실증 개발지원센터, 세계사예비엔날레 전용관 건립 등 전북 대도약 실현과 자존의식 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이 다수 반영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 연계사업, 융복합 미래 신산업 삼락농정·농생명 등 도정 핵심사업의 국회단계 중점사업 추가 반영을 위해 실·국장 중심으로 한 방문 활동을 비롯해 유선 접촉, 이메일 제공 등 축적된 모든 가용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 물밑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간의 활동을 바탕으로 도는 15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소관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단계 최대 반영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회 상임위, 예결위 단계 대응을 수립하고 사업별 부처 및 기재부 반응에 대한 전략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면서 지휘부의 국회 및 기재부 활동을 비롯해 정치권과 예산정책협의회, 시군 협조체계 구축 등 선제적으로 대응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각 실·국별로 기재부 반응이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사업 중심으로 쟁점 해소를 위한 세부전략을 논의하는 등 효과적인 국가예산 확보 방안을 구상했다.

도는 앞으로 3년 연속 7조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국회 상임위·예결위 단계 별 상황에 따른 전략을 가지고 전방위적인 예산 확보전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오는 21일부터 도와 시군 합동으로 국가예산 배이스캠프를 국회에 치르고 주요사업 삼각방지와 증액사업 반영을 위해 현장에서 신속히 대응하며 10월 28일 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정치권과 공조를 혼

들립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지휘부는 국회 의결이 확정되는 12월 초까지 국회, 기재부 등을 지속적으로 방

문해 국비 세일즈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오는 19일에는 최훈 행정부지사가 세종으로 우범기 정부부지사는 국회로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어 송하진 도지사는 10월 28일 국회 상임위원장 방문을 시작으로 연고 국회의원, 예결위원, 당 지도부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이날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 등으로 국가예산 확보 활동이 쉽지는 않지만 도와 시군 정치권이 혼연일체해 전북 대도약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전력투구에 주길” 당부했다.

/유효상 기자



전북도는 15일 도청 회의실에서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소관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단계 최대 반영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전라중, 2024년 3월 에코시티로 이전

유효표의 84.6% “찬성”

전라중학교가 본교 이전을 통한 명문학교로의 재도약에 나섰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전라중학교 이전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2024년 3월 송천동 에코시티로 이전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주 에코시티 내 1만3,353세대의 대단지 공동주택 건설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들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 학군 내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소규모 중학교를 대

상으로 학교이전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지난 9월29일~10월7일 전라중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전 제안 설명회를 실시, 13일~14일 이틀 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투표에 230명이 참여했고, 이중 유효표 221표, 무효표 9표로 집계됐다. 특히 유효표의 84.6%인 187명이 이전에 찬성함에 따라 전라중학교를 최종 이전 대상학교로 선정했다.

전라중학교는 1968년 개교 이후 1,741명(1996년)까지 학생수가 증가했으나 현재는 학생 수 138명(6학년)의

소규모 중학교다. 이에 에코시티로 이전할 경우 총 31학급(일반학급 30학급, 특수학급 1학급)으로 설립돼 50여년의 역사와 학교명, 통창회 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전라중학교 자리에는 전주교육지원청과 전주시내 각 학교에 분산돼 있는 학생상담센터(Wee센터), 영재교육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각종 지원센터를 이사회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육행정서비스 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이어서 원도심 공동화를 우려하는 덕진동 주민들의 상실감을 채워주고, 지역경제활동

전주 첫 마을버스 ‘바로온’ 달린다

내달 14일부터 본격 운행 외곽지역 이동불편 해소

조촌동과 우이동, 동서학동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마을버스가 다음 달 중순부터 운행돼 주민들의 이동불편이 줄어들게 됐다.

시는 다음 달 14일부터 시 외곽 지역과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등을 오가는 18개 노선의 마을버스 ‘바로온(사진)’을 운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노선 노선은 △고잔·신유강·덕동·홍개·청북·용신·신기·오신마을 등 여의·조촌동 방면(8개 노선) △혁신·만성동 방면(2개 노선) △산재·금하·원산정마을 등 금암·인후·우이동 방면(3개 노선) △추동·학전·원당리 등 평화동 방면(1개 노선) △삼경사·고덕·내원당마을 등 동서학동 방면(4개 노선) 등이다.

시는 이 구간에 중소형 마을버스 총 18대(예비차 2대 포함)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 중 12대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전기버스다.

또 시민들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4대의 중소형 승합차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앞까지 갈 수 있도록 했다. 이용 요금은 어른과 학생, 어린이 모두 500원이다. 시내 버스를 최대 2회까지 무료로 환승할 수 있으며, 시내버스 정기권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다음 달 마을버스 도입에 따른 하반기 노선개편을 시행해 복잡했던 기존 노선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또 마을버스 신설 노선과 시간표



정보 등이 수록된 마을버스 안내책자를 조촌동 등 9개 동 주민센터와 고잔마을 등 50여 개 마을에 비치하기로 했다.

시는 마을버스 ‘바로온’이 운행되면 구간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던 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이용객이 적고 운행거리가 길었던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함으로써 버스 운전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운송회사의 재정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주시 마을버스 도입 및 노선체계 수립 용역’을 추진해 권역과 노선을 확정했다. 지난해 9월에는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도입 예정지역 주민들과 설명회도 개최했다.

올해 4월에는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영을 위해 전주시설관리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전주시 마을버스 바로온의 도입은 시내버스의 보조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활성화에도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라중학교 이전·신설은 2020년 10월 중 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거쳐 2020년 12월중에 예정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경우 2024년 3월 개교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도심 중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해준 전라중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학교 이전에 따른 재학생 지원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들과 계속 소통하고, 학교 이전을 위한 남은 절차(자체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를 철저히 준비해 2024년 3월 전라중학교가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축! 전주매일 창간

www.iksan.go.kr

성공기업도시 익산

최상의 입지여건 최적의 투자환경

기업의 가치와 만족을 높여드립니다.

- 편리하고 체계화된 교통·물류**
수도권 1시간, 전국 2시간대의 편리한 교통의 중심
- 최적의 산업인프라 구축**
저렴한 분양가, 풍부한 용수, 완벽한 폐수처리
- 다양한 기업지원책**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적극적 기업애로 해소, 민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 독창적·미래지향적 도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새만금 배후도시

익산시